

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

- 14일부터 「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」 개정안 행정예고
... 재해취약성 분석 정확도 높여 도시계획 실효성 강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2월 발표한 「기후변화에 따른 도시·주거 재해대응력 강화방안」(2.23.) 후속조치로 「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* 및 활용에 관한 지침」 개정안을 행정예고(11.14.~12.4.)한다.

*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,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'15년 의무화된 제도

-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다.

-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.

-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(인구 500명 기준 구획)에서 100m×100m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,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,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.

- 또한,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.

- 이번 개정안은 도시·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·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.

* 개정안은 11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에서 볼 수 있으며, 우편, 팩스,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

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협력지원과 팩스 : 044-201-5574

-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“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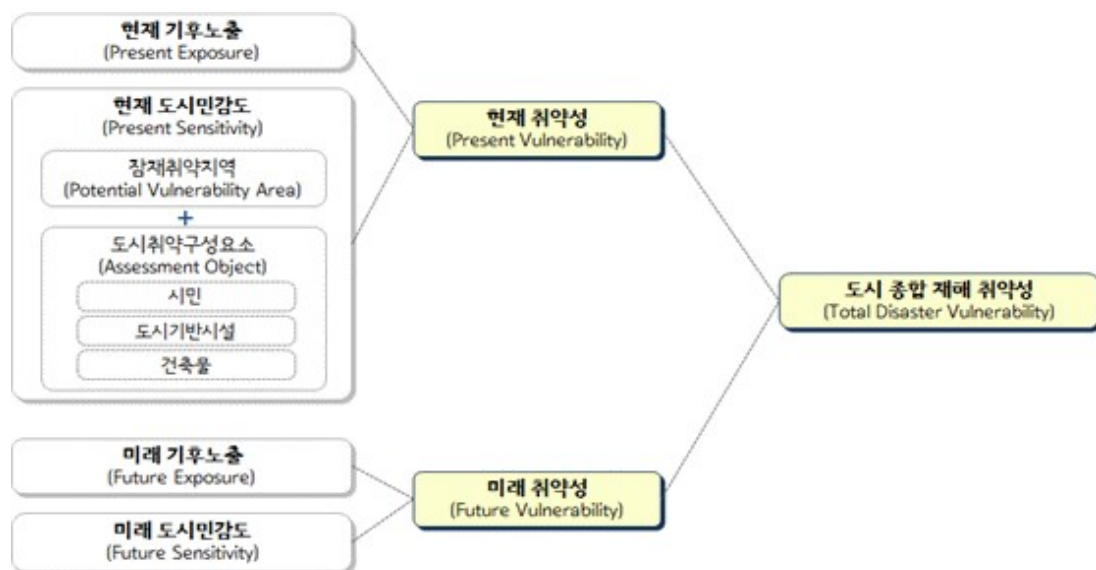
담당부서	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기훈	(044-201-3730)
		담당자	사무관	유지원	(044-201-3735)
			주무관	임재필	(044-201-3734)



□ 제도 개요

- (개념)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
- (근거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7조
- (주체) 시장·군수 등 지자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실시
- (재해유형) 폭우, 가뭄, 폭염, 폭설, 강풍, 해수면상승 등 6개
- (분석구조) 현재 및 미래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 지표를 분석하여 상대적인 현재 및 미래 취약성을 도출
 - 도출된 현재취약성과 미래취약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 재해취약성을 4개 등급으로 구분(1등급이 취약성이 가장 높음)
- (분석단위) 가장 최근 인구통계조사 집계구* 단위 분석이 원칙

*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지형물로 구획한 공간단위(보통 읍면동의 1/23크기)



참고2

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주요 개선 내용

□ 개정 배경

- 극단적 집중호우 등 최근 기후위기 특성을 반영하도록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(폭우)을 고도화하여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 제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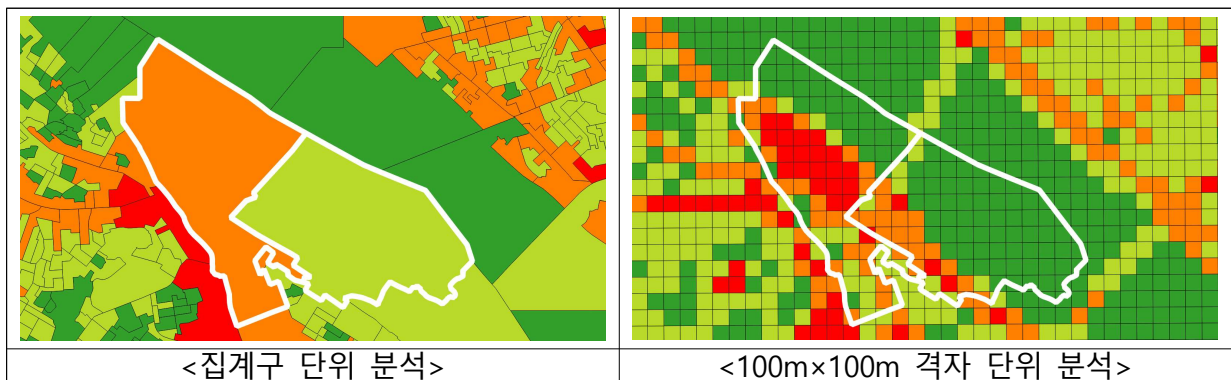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개정내용

- (분석단위) 현행 인구통계조사 집계구* 분석은 인구 밀도에 따라 공간단위가 균일하지 않아 정확하고 세부적인 결과 도출에 한계

*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지형물로 구획한 공간 단위(보통 읍·면의 1/23크기)

- 활용가능한 공간 데이터 여건 등을 고려 100m×100m격자 단위 분석으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 개선

< 재해취약성 분석단위 개선(예시) >



- (분석지표) 극한기후 관련 지표*를 추가하고 최근 기후변화의 빠른 양상을 반영하도록 데이터 수집기간을 단축(30년간→10년간)

* 1일 최대강수량, 5일 최대강수량, 연평균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이상 날의 횟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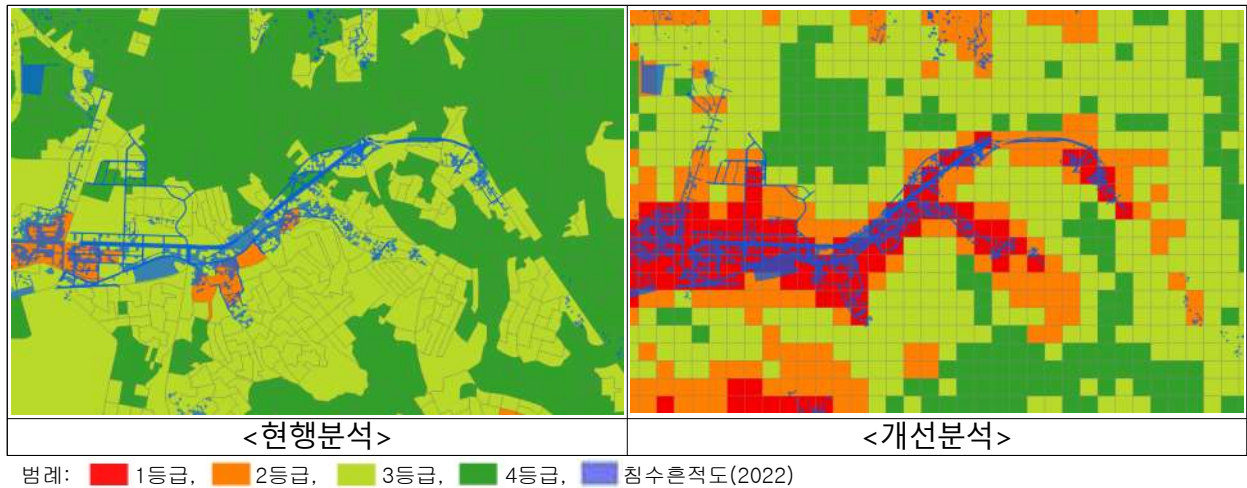
- 도시 홍수의 직접적 원인인 불투수 면적, 지형적 특성(상대적 저지대)을 분석지표로 추가하고 간접적 지표는 생략

<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주요 개선사항 >

구분	현행	개선
기후 노출	△ 80mm/일 이상 강수일수 등 2개 지표로 구성 △ 과거 30년의 평균 기상데이터 반영	△ 1일 최대 강수량 등 극한기후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5개 지표로 구성 △ 과거 10년의 평균 기상데이터 반영
도시 민감도	△ 내수침수 주요원인 지표 미포함 △ 수도·전기공급설비 등 간접지표 포함	▶ △ 내수침수 원인인 도시 내 지형적 특성(상대적 저지대)과 불투수면적(시가화지역) 추가 △ 수도공급설비 등 간접지표는 제외

- (분석방법) 현행 분석구조는 취약성에 관련된 지표가 많을수록 개별 지표의 반영비중이 낮아지는 등 지표 간 영향력 불균형 존재
 - 지표 수와 관계 없이 지표 간 영향력을 고르게 하고, 지역여건을 고려, 시행 주체가 지표별 가중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

<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종합(예시) >



□ 적용 시기

- 개정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·군계획안부터 적용